

광주시립미술관 동학전시...“가치 전달 있지만 예술 울림은 없어”

12월1일까지 '시천여민' 전... “과거 복귀형 방식 시대착오적” 비판 세대·트렌드·시대성 등 감안, 시민 찾는 전시로 공공성 가치 추구를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동학 관련 전시에 대해 “과거 복귀형의 방식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지역 미술계에 확산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기념 특별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비전, 감각을 담아 재해석해야 함에도 구형 방식이 기존의 관행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6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시천여민(侍天與民)’은 동학으로부터 오월의 스토리를 이어 조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각각의 개별적, 분절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근현대사에 있어 민주와 인권, 평화라는 정신적 가치가 계승돼 왔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전시 개최 두 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립미술관이 밝힌 지난 3일까지 전시 관람객은 1만8622명이다. 1억4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기획한 전시치고는 다소 초라한 결과다. 당초 창설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맞물려 시립미술관이 미술 담론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월례 포럼도 동학과 5·18관련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24일 ‘개벽예술’, 9월 23일 ‘5·18과 예술’이 펼쳐졌으며, ‘동학에 떠밀려 가는

길-여성·평화·분단극복’(8월), ‘5·18민주화운동과 여성’(7월) 등으로 채워졌다. 3월부터 10월까지 동학과 오월 관련 주제로 짜여져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술계 관계자 A씨는 “전시 내부를 보면 동학과 5월이 큰 주제인데 이것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풀어내려는 노력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오늘의 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재해석했다면 멋진 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과거 복귀형 전시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작가를 초청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복제형의 전시가 될지 새로운 세대와 시대성을 아우르는 의미있는 전시가 될지 달라진다”며 “이번 전시가 동학이라는 가치 전달은 있지만 예술이라는 울림은 없다. 예술의 본질이 울림인데, 울림이 크면 클수록 의미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이라는 ‘존재감’ 측면에서 볼 때도 이번 전시는 아쉬움이 크다. 광주라는 지리적인 요건, 비엔날레와 동일한 기간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술계 인사 B씨는 “지역미술관 특히 국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하고 살피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대적 타이밍이나 여론,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기획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기념 특별전 일환으로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동학 전시 ‘시천여민(侍天與民)’이 미술계 안팎으로부터 “과거 복귀형 방식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특별전을 연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현 김준기 관장 부임 이후 시립미술관이 시민들로부터 각인될 만한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연 적은 거의 없다. 시 지원 예산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민간갤러리가 개최하기 어려운 굵직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국립미술관의 존재 이유다.

미술계 관계자 C씨는 “물론 대부분 전시 방향은 관장인 ‘선장’이 정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공미술관이나 관장이 하고 싶은 전시보다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전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눈에 띄는 기획으로 존재감을 과

시하고 있다. 올해 벨기에 출신 세계적인 작가 리너스 반 데 벨데의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5월 21일-8월 18일)전에 3만2000명 관람객이 다녀갔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지호 화백 전시가 예정돼 있다. 오 화백은 지역성을 떠나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0점 작품, 리움미술관에서 거의 공개 안 된 작품이 온다. 또한 동경예술대 시절의 졸업 작품 등이 걸릴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번 동학전시와 관련 비판적 여론에 대해 모작가는 ‘시스템의 공공성’을 거론했다. 전시를 준비하는 일련의 기획 단계부터 구현되는 과정까지 민

주적 방식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D 작가는 “회의, 전시 등 논의 과정에 있어 공공성 담보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서 민주주의 동학을 이야기하는데 전시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관장은 책임을 지고 ‘플레이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이 중요한 시립미술관은 학예사, 기획자, 시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작가 등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작 외에도 개막 3일 동안은 대규모 미디어작품으로 미디어퍼포먼스를 풀어내 장르 면에서 차별화된 전시”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례길서 얻은 영감, 신비로운 작품으로

오수경 ‘pilgrim -순례자’ 전 29일까지 광주 ‘브리티갤러리’

순례길 하면 스페인 산티아고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우리는 너무도 서양에 익숙해졌다. 서양의 관점, 서양의 사유를 차용하고 이를 문화에 접목하고 담연시한다.

그러나 순례길은 동양에도 있다.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따라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서인도까지 이르는 길도 순례길이다.

당시 현장법사는 인도철학 역사 문화, 유물을 당나라로 가져왔고 이후 당나라는 문화적 번성을 이루었다. 657권의 불교서적, 150 개 사리, 7점의 불상은 이를 방증한다.

오수경 화가는 지난 5월 2주에 걸쳐 동양의 순례길을 답사했다. 순례길 막고굴 전체를 탐험했고 이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그림을 그렸다.

오수경 작가가 ‘pilgrim -순례자’를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브리티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현장법사의 순례처럼 관람객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의 작품, 새롭게 그린 작품 등 모두 21점이 걸렸으며 ‘수처자주-Wherever You Are’ 등을 볼 수 있다.

오 작가는 “5월 말부터 2주간 순례 막고굴 전체



‘pilgrim 24-VI’

를 탐험하고 돌아온 영감이라는 사막을 거닐었다”며 “이번 전시 ‘순례길’을 하면서 부제로 ‘순례’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미술은 물론 보고 들었던 체험들을 경험과 연계해 저만의 작품을 구상했다”며 “현장법사의 순례로 가져온 문화적 변화를 직접 보고 스케치도 하면서 도상적인 형태를 찾고 싶었다”고 전시 계기를 말했다.

그는 서양화 장르로 그림을 시작했지만 “유럽 중심적 색채를 탈피해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모티브로 영감을 얻는 이유다.

‘pilgrim 24-VI’는 신비로우면서도 이색적이다. 색감과 조형이 도양과 서양의 교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체험과 사유, 문화적 심미안 등이 투영된 작품은 비유적 필그림으로 손색이 없다.



‘pilgrim 순례 - I’

‘pilgrim 순례-II’는 사막의 동식물 등 생물과 자연환경을 조점화한 작품이다. 신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아우라를 발하지만 배면에는 동양적인 사유와 인식이 드러워져 있다.

오 작가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막의 느낌 등이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 앞으로는 꽃이나 줄기보다는 바위나 사막 등이 주제가 될 것 같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했다. 시간의 축적, 자연의 축적에 향후 작품 주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편 오 작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롯데갤러리 전시 등 다수 개인전을 비롯해 2024아트광주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미지 디 피아노가 지난 10월 전남대 예향홀에서 진행했던 ‘브람스, 왈츠를 노래하다’ 공연 장면. (이미지 디 피아노 제공)

‘브람스 피아노 앙상블 전곡연주회’

이미지 디 피아노 ‘Two Brahms’, 6일 광주예술의전당

이미지 디 피아노(대표 신수경·전남대 음악학과)는 올해 초 ‘브람스 피아노 앙상블 전곡연주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공연을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브람스 ‘헝가리 무곡’, 10월 ‘브람스, 왈츠를 노래하다’를 선보였으며 어느덧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6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치는 ‘Two Brahms’이 바로 그것.

먼저 피아니스트 황예진과 조연미는 포핸즈로 ‘브람스의 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한다. 슈만의 라인강 투신, 출산 등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슈만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어 신수경, 박진희가 두 대 피아노로 선사하는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관객들을 만난다. 브람스의 탁월한 연주 기교를 여실히 드러내 오늘날에도 사랑받는 작품이다. 끝으로 ‘피아노

5중주 2피아노 버전’은 최현호와 이철민이 들려준다.

전남대 음악학과 신수경 교수가 창단한 이미지 디 피아노는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실력과 피아니스트들이 주축을 이룬다. 지난해에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사울에 걸쳐 피아노가 포함된 주요곡 대부분을 연주하기도 했다.

신수경 대표는 “앞선 연주회에서 ‘헝가리 무곡’을 원곡인 피아노 앙상블로 전곡 연주했으며, 각각 18곡, 15곡으로 구성된 ‘사랑의 노래 왈츠’ 전곡을 광주 초연할 만큼 브람스에 주목해 왔다”며 “‘이미지 디 피아노’가 피아노 전문 연주단체를 지향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 있고 학구적인 연주회를 펼쳐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클래식 강연

광주문화재단 ‘무등의 판을 벌이다’ 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바로크 음악의 웅장함부터 낭만주의의 서정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음악사’ 여행.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과 (사)인문도시연구원 ‘무등의 판을 벌이다’를 6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강연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등 바로크 시대부터 낭만주의 사조로 이어진 클래식 음악사를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비발디 ‘사계’를 텍스트 삼아 자연의 변화를 표현했던 바로크 시기 특징을 조망한다.

바로크 ‘G선상의 아리아’를 비롯한 관현악 모음곡의 아름다움과 바로크 음악세계, 모차르트 ‘체레네 데 13번’ 등에 나타난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다. 이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멘델스존, 차이콥스키를 다룬다.

조운범은 2001년 현악사중주단 코르넬 엑스플



지난 무등의 판을 벌이다 3강 ‘판-무등의 소리’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창단한 뒤 리더로 활동 중이다. CBS 라디오 ‘아름다운 당신에게’ 주말 DJ, KBS 1TV ‘문화책잡기’를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을 쉽게 풀어냈다.

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이난영 담당은 “조운범은 클래식의 음악사를 다루며 관객들에게 그 매력을

쉽게 소개해 왔다”며 “고전음악을 깊이 있게 성장하는 이번 강연이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강의, 좌석 현장배정(선착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아시아 공예의 미래’ 주제 공예 워크숍

15~17일 기관·분야별 시민 대상... 18일 염색장인들 교류활동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5-17일 ACC 특별열람실에서 ‘아시아 공예의 미래’를 주제로 공예 워크숍을 연다.

‘아시아 공예의 미래’는 ACC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한국과 브루나이 수교 40주년, 한국과 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브루나이와 태국 대사관, 문화부, 현지 공예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 공예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ACC는 이번 ‘아시아 공예의 미래’ 워크숍을 위해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교육센터, 태국 지속가능 예술 공예 연구소, 태국 감 빌리지와 협력해

분야별 대표 공예 장인들을 초대했다.

먼저 오는 15-17일까지 기관 및 분야별로 하루 2회씩 시민 대상 공예 워크숍이 총 6회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태국 북부 전통 대나무 공예 ‘타 라에우 드림캐처 만들기’, 태국 남부에서 유래한 전통 직조 공예 ‘얀 리파오 벵글 만들기’, 브루나이 전통 공예품으로 벨레로부터 음식을 보호하는 음식 덮개인 ‘투둥 돌랑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염색장 정관재 전수교육관(나주)과 조선대학교에서 국내 대표 장인들의 교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